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



제목 : 외할머니와 금강사철 다녀오기

금강사 철에 가기 위해서 어제
외할머니 집으로 왔다. 아침 7:50
분에 외할머니 집에서 일어났다.
세수하고, 아침을 먹고 금강사 철로
출발하였다. 영도 포구청역에서 관악
역까지 지하철을 타고, 그다음은 금
강사 철까지 걸어 갔다. 범당에서
제일 큰 부처님 상이 눈에 먼저
보였다. 손모양이 어땀지 궁금했다?
나도 할머니랑 철을 했는데 몇
번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. 할머
니하고 김밥천국에서 돈까스 김밥,
만두국을 먹었다. 먹고나니 배부러
다. 그리고 다시 외할머니 집으로 왔
다. 4시쯤 넘어서 목욕탕에 갔다.
목욕탕에서 수영도 하고, 때도 밧었다.
때가 작은 국수 2구릇 나올 정도로 쪼
금 많이 나왔다. 나와서 옷입고 외할
머니 집으로 왔어, 아빠, 동생이 왔
어 외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
우리 집으로 갔다.